

EFL 학습자들의 영어 어휘 학습 전략과 영어 능력과의 상관관계*

김동규 **

|| 차례 ||

1. 서론
2. 이론적 배경
3. 연구 방법
4. 연구 결과 및 분석
5. 결론 및 제언

[국문초록]

본 연구는 EFL 학습자들의 영어 어휘 학습 전략 사용 실태를 조사해 보는 동시에 학습자들의 영어 어휘 전략 사용도와 영어 능력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연구이다. 이를 위해 대학생 142명을 대상으로 영어 어휘 전략 사용에 대한 설문조사와 TOEIC 평가가 각각 실시되었다. 설문은 30개 문항으로 각각의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이 이루어졌고, 이들 문항들은 총 6개의 소영역으로 다시 범주화되어 분석이 이루어졌다. 학습자들의 영어 어휘 학습 전략과 영어 능력 간의 상관관계는 SPSS 통계 분석을 통해 이루어졌다. 연구 결과, 학습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영어 어휘 학습 전략은 '의미발견전략'으로 나타났고, '인지전략', '기억전략'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상위인지전략'은 6개의 소영역 가운데 가장 사용도가 낮은 영어 어휘 학습 전략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영어 어휘 학습 전략과 영어 능력 간의 상관관계는 '상위인지전략'이 학생들의 영어 능력과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주었고, 그 다음이 '의미발견전략: 결정전략'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영어 어휘 학습 전략에 대한 제언이 함께 이루어졌다.

* 이 논문은 2016년도 부산교육대학교 교내 연구과제로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 부산교육대학교 영어교육과 교수. dkim@bnue.ac.kr

주제어 : 영어어휘, 어휘교육, 학습전략, 어휘학습전략, 전략분석, 단어, 상관관계

1. 서론

오늘날 국제화, 세계화 시대를 맞이하여 국가 간 교류가 더욱 활발해지고 이로 인한 외국어 의사소통능력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강조되고 있다. 또한 지식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국제 사회의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외국어로 된 수 많은 정보를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날 영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외국어 학습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학습자의 어휘 능력일 것이다. 문법 능력이 다소 부족한 학습자라 할지라도 어휘만 나열해도 상대방을 이해시키는 것이 가능하나, 어휘력이 제한된 학습자는 문법적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상대방을 이해시키는 데 한계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제2언어 또는 외국어 교육의 역사를 돌이켜 볼 때, 어휘 교육에 대한 중요성과 관심은 최근 더욱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과거 청화식교수법이 ESL/EFL 교육에서 주를 이룰 때 어휘는 소외되고 경시된 영역이었다. 그 당시 학자들은 ESL/EFL 학습자들에게 기본적인 문법 유형을 제시하고 이를 연습시키는 데만 초점을 맞추고, 어휘란 이러한 문형 연습을 통해 저절로 습득될 수 있는 분야라고 믿었다. 그러나 청화식교수법의 쇠퇴와 더불어 몇몇 학자들은 이러한 인식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고, 1990년대에 들어서 많은 학자들이 ESL/EFL 교육에서 어휘의 중요성을 역설하기 시작했다(Coady & Huckin, 1997; Laufer, 1997; McCarthy, 1990; Wills, 1996).

영어 어휘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먼저 어휘를 학습 전략과 연관 지어 살펴보고자 한다. Rubin(1975)은 외국어 학습에서 성공적인 학습자는 그렇지 못한 학습자들에 비해 훨씬 더 다양하고 많은 학습 전략을 사용한다고 하였다. 또한 그녀는 성공적인 학습자가 사용하는 전략을 조사·분석하여 그렇지 못한 학습자들에게

효과적인 전략을 전수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전략에 관한 연구는 1990년대 초 Oxford(1990), O'Malley와 Chamot(1990) 등이 주도해 근래까지 많은 학자들에 의해 방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전략 연구에서 영어 어휘 관련 연구는 다른 네 가지 기능과 관련된 연구에 비해 아직까지 다소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EFL 학습자들의 영어 어휘 학습 전략 사용 실태를 설문을 통해 고찰해 보는 동시에 그들이 사용하는 영어 어휘 학습 전략 사용 정도와 학습자들의 영어 능력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학생들의 영어 어휘 학습 전략 사용 실태를 파악하고, 영어 능력과 관련이 깊은 어휘 학습 전략을 분석하여 영어 어휘 학습 및 지도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외국어 학습에서 어휘의 중요성

외국어를 배우는 목적은 해당 외국어로 의사소통을 자유롭게 하기 위함일 것이다.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 학습자는 우선 해당 외국어의 어휘력 배양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그 이유는 가령 영어 학습자가 영어에 대한 문법적 지식이 풍부하고 유창한 영어 발음을 지녔다 할지라도 영어 어휘력이 부족하다면 영어로 의사소통을 하는 데 어려움이 여전히 클 것이다. 외국어 학습에서 어휘의 중요성은 많은 학자들에 의해 지지를 받아왔었다.

McCarthy(1990)는 다양한 분야의 영어 어휘력 없이는 EFL 학습자가 우수한 발음 및 문법 능력을 지녔다할지라도 의미 있는 의사소통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하였다. Sokmen(1997)은 외국어의 네 가지 기능, 즉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가 EFL 학습자들에게 모두 중요한 영역이지만, 그 네 기능의 기초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어휘라고 하였다. Rivers(1983)에 의하면 외국어 학습자가 외국어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어휘력이 우선되어야

하는데, 그 이유는 어휘력 부족은 학습자가 이미 습득한 문법 능력을 무용지물로 만들 수도 있기 때문이라 하였다. Laufer(1997) 역시 외국어 학습에 있어서 적절한 어휘를 사용하는 것은 정확한 문법을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하였다. Nunan(1988)은 한걸음 더 나아가 어휘는 외국어를 배우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외국어를 가르치는 교사들이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하는 중요한 영역이라고 역설하였다.

김영숙(2002)은 외국어 학습에서 어휘는 병사가 전쟁에서 지니고 나가야 할 총알과도 같은 소중한 존재라고 하였다. 김동규(2013)는 어휘의 중요성을 ESL 아동의 사례연구에서 보여주었는데, 어휘 학습은 아동의 영어 학습과 관련된 정의적 요인에 매우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다. 이정은과 김동규(2014) 역시 우리나라 영어 어휘관련 연구를 주제별로 소개하면서 영어 학습에서 어휘의 중요성을 밝혔다.

위의 학자들의 공통적인 주장은 외국어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해당 외국어의 충분한 어휘력을 갖추는 것이 필수적이고, 학습자는 이러한 어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어휘 습득에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다.

2.2. 외국어 학습 전략과 어휘 학습 전략

외국어 학습 전략에 관한 연구는 과거 1970년대 몇몇 학자들의 ‘우수한 외국어 학습자’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시작되었다(Naiman, Fröhlich, & Todesco, 1975; Rubin, 1975; Stern, 1975). 이들은 우수한 학습자들은 그렇지 못한 학습자들에 비해 더 실용적이고 효과적인 학습 전략을 사용할 것이라 믿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우수한 외국어 학습자들의 학습 과정을 면밀히 분석해 보고, 외국어 학습 과정에서 사용되는 우수한 학습자들의 학습 전략을 추출하였다.

그 후, Rubin(1987), O'Malley와 Chamot(1990), Oxford(1990) 등 몇몇 학자들에 의해 외국어 학습 전략에 대한 분류 작업이 이루어졌다. 먼저 Rubin(1987)은 학습 전략을 외국어 학습 과정에 기여하는 과정에 따라 ‘직접 전략’과 ‘간접 전략’으로 분류하였다. 직접 전략은 모니터링, 기억, 추측 및 귀

납적 추론, 연역적 추론, 연습, 명확화 및 확인 등을 말하며, 간접 전략은 외국어로 타인과 대화할 때 유용하게 적용할 수 있는 발화 기법이나 해당 외국어 연습 기회를 만드는 행위 등을 지칭한다.

O'Malley와 Chamot(1990)는 1980년대 외국어 학습 전략에 대한 기존 연구들을 분석 및 재평가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외국어 학습 전략 분류 기준을 제공하였다. 그들은 외국어 학습 전략을 '상위인지전략', '인지전략', '사회적/정의적 전략' 등 세 가지 영역으로 분류하였는데, 이러한 분류 체계는 향후 외국어 학습 전략 연구에서 많은 학자들에 의해 인용되었다.

외국어 학습 전략 연구 분야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인물은 아마도 Oxford(1990)일 것이다. Oxford는 Rubin(1987)과 마찬가지로 직접 전략과 간접 전략으로 외국어 학습 전략을 분류하였지만 Rubin과 같이 외국어 학습 과정 기여도에 따라 전략을 분류하지 않고, 언어의 네 가지 기능에 따라 외국어 학습 전략을 종합적으로 분류하였다. Oxford의 '직접 전략'으로는 기억전략, 인지전략, 보상전략 등을 포함하며, '간접 전략'은 상위인지전략, 정의적 전략, 사회적 전략 등을 포함한다.

한편 어휘 학습 전략은 Schmitt(1997)의 분류가 가장 일반적인 체계로 평가되고 가장 많이 인용된다. Schmitt는 어휘 학습 전략을 크게 '의미발견전략'과 '기억강화전략'으로 구분하였는데, 그 하위영역에 '결정전략', '사회적 전략', '기억전략', '인지전략', '상위인지전략'을 포함하고 있다. '결정전략'이란 학습자들이 해당 단어의 뜻을 모를 때 문맥이나 본인이 지닌 언어 구조에 관한 지식 등을 활용하여 해당 단어의 의미를 유추해나가는 전략을 말한다. '사회적 전략'이란 학습자들이 모르는 단어를 타인에게 묻거나 동료 학습자와 협력하여 해당 단어의 의미를 추론해 나가는 전략을 지칭한다. '기억전략'은 해당 단어에 대해 심상활용을 하거나 단어들을 그룹화 하여 어휘를 학습해 나가는 전략을 말한다. '인지전략'이란 단어장을 만들어 암기하거나 반복 학습 등을 통해 어휘를 학습해 나가는 전략을 지칭한다. 끝으로 '상위인지전략'은 어휘 학습을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미리 계획을 세우거나 자신의 학습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학습 결과에 대해 반성해 보는 전략을 말한다.

Schmitt에 따르면 '결정전략'과 '사회적 전략'은 새롭게 접하는 어휘를 받

견하는 전략이라 ‘의미발견전략’으로 분류되고, 나머지 세 전략, 즉 ‘기억전략’, ‘인지전략’, ‘상위인지전략’ 등은 이미 배운 어휘를 강화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이유에서 ‘기억강화전략’으로 분류된다고 하였다.

2.3. 선행연구

영어교육에서 어휘 학습 전략과 관련된 연구는 어휘 학습 전략 사용 실태에 관한 연구와 어휘 전략과 성취도 간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어휘 학습 전략 사용 실태에 대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Stoffer(1995)는 어휘 학습 전략 분류를 시도한 최초의 학자이다. 그는 53개의 많은 문항으로 미국 대학생들을 상대로 어휘 학습 전략을 분석해 보았는데, 실질적인 언어 사용에 관한 전략, 자기 동기유발을 위한 전략 등 총 9개의 소영역으로 나누어 분석을 하였다.

다음으로 Schmitt(1997)는 외국어 학습자가 학습 도중 새로운 어휘를 접했을 때 사용하는 전략과 그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활용하는 전략들을 각각 나누어 설문문을 통해 분석해 보았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Schmitt의 발견전략으로는 ‘결정전략’과 ‘사회적 전략’이 강화전략으로는 ‘기억전략’, ‘인지전략’, ‘상위인지전략’ 등이 포함된다. 본 연구에서는 Schmitt의 이러한 분류를 기초로 해서 설문문을 우리나라 EFL 학생들의 실정에 맞게 수정·보완해서 사용하였다.

Ahmed(1989), Oxford(1990) 등의 연구에 의하면 우수한 외국어 학습자는 그렇지 못한 학습자에 비해 새로운 어휘를 접하면 문맥을 통해 추측해 보려는 시도를 많이 하고, 또한 새로운 단어에 대한 인식이 높아 연어와 철자에 신경을 더 기울인다고 하였다. Fan(2003) 역시 우수한 외국어 학습자와 그렇지 못한 학습자 사이의 차이를 발견하였는데, 그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수한 학습자는 그렇지 못한 학습자에 비해 더 자주 그리고 더 다양한 유형의 어휘 전략을 사용한다는 것이 발견되었다. Gu와 Johnson(1996) 역시 이와 유사한 연구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Catalan(2003)는 성별에 따른 어휘 학습 전략에 대해 고찰해 보았는데, 연

구 결과에 따르면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더 다양하고 많은 어휘 학습 전략을 사용하였다. Grace(2000)의 연구에서는 남학생은 번역전략을, 여학생은 문맥에서 추측하기 전략을 더 많이 활용하였다.

국내에서는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나은경(2002)의 연구가 있는데, 영어 성취도 면에서 수준별로 구분하였을 때, 중상위권 학생들은 단순 암기보다는 문맥을 통한 단어 학습을 선호하고 있음이 발견되었다. 초중고 그리고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Park(2001)의 연구에서는 학습자들이 새 단어를 장기 기억에 저장하기 위해 단어 철자와 발음을 큰 소리로 소리내보는 전략을 사용하였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상위인지전략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존의 선행연구는 설문을 활용하여 우수한 학습자와 그렇지 못한 학습자들이 사용하는 어휘 학습 전략의 차이를 고찰하거나, 성별에 따른 어휘 학습 전략의 차이 등을 살펴본 연구가 많다. 본 연구에서는 교육대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통해 그들이 사용하는 어휘 학습 전략 사용 정도를 고찰해 보고, 그들의 영어 성적과 어휘 학습 전략사용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이들 사이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도출되면 이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어휘 학습 및 지도에 대한 제언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3. 연구 방법

3.1. 연구 대상

본 연구 참가자는 150명의 대학생들이었다. 이들은 교육대학에서 교양과목을 수강하고 있었던 1학년 학생들로 남학생 52명, 여학생 98명이었다. 이들은 초등교육을 전공하고 있었으며 고등학교 시절 대부분 영어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로 이루어져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총 150명 가운데 설문에 응답

하지 않거나 영어 평가에 누락된 학생을 제외하고 총 142명의 학생들의 자료에 대해 분석이 이루어졌다.

먼저 이들은 배경설문조사를 거쳤는데 영어와 관련된 학생 본인들의 실력을 스스로 평가한 결과는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영어 관련 자기 평가

항목	하하	하	중	상	상상
듣기	0%	15.5%	65.5%	19%	0%
말하기	6.9%	46.6%	44.8%	1.7%	0%
읽기	3.5%	7%	68.4%	21.1%	0%
쓰기	13.8%	34.5%	51.7%	0%	0%
어휘	3.4%	15.5%	69%	12.1%	0%

위 표 1에서 보듯이 본 연구에 참가한 학생들은 듣기영역 자기평가에서 ‘중’이라고 답한 비율이 65.5%로 가장 높았고, 말하기의 경우는 ‘하’라고 응답한 비율이 46.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읽기는 다른 영역과 비교하여 ‘상’이라고 답한 비율이 21.1%로 가장 높았고, 쓰기의 경우 다른 영역과 비교하여 ‘하하’라고 답한 비율이 13.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쓰기의 경우 ‘상’ 또는 ‘상상’이라고 답한 학생이 단 한 명도 없어 학생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영역임을 알 수 있었다. 끝으로 어휘의 경우 ‘중’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69%로 가장 높았고 전체적으로 듣기 영역과 비슷한 분포를 나타내었다.

3.2. 연구 도구

3.2.1. 영어 어휘 학습 전략 설문지

본 연구에 참가한 학생들의 영어 어휘 학습 전략을 파악하고자 설문지가 제작되었는데, 이는 Schmitt(1997)의 어휘 학습 전략 설문지를 기반으로 하고, 김지선(2011)의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 문항이 일부 사용되었다. 총 30문

항으로 이루어진 영어 어휘 학습 전략 설문지는 하위 6개 영역으로 다시 세분화 되었다. 6개 영역은 ‘상위인지전략’, ‘의미발견전략: 결정전략’, ‘의미발견전략: 사전활용’, ‘기억전략’, ‘인지전략’, ‘어휘활용전략’ 등이었다.

본 설문지에 대한 신뢰도를 SPSS 통계 프로그램으로 분석해 본 결과, Cronbach's alpha 수치가 .91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래 표 2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영어 어휘 학습 전략 설문지에 대한 문항 구성을 나타낸 것이다. 각 설문 문항은 ‘1. 결코 아니다’에서 ‘5. 매우 그렇다’까지의 5단위 척도로 응답하게 이루어졌는데, 구체적인 문항 및 구성은 [부록]에 나타나있다.

표 2. 영어 어휘 학습 전략 설문지 문항 구성

소영역	문항 번호
상위인지전략	1~4
의미발견전략: 결정전략	5~9
의미발견전략: 사전활용(인터넷 또는 전자사전 포함)	10~16
기억전략	17~22
인지전략	23~26
어휘활용전략	27~30

3.2.2. 영어 평가지

본 연구에 참가한 학생들의 영어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TOEIC 평가지가 사용되었다. TOEIC 평가지는 2016년 5월 말을 기준으로 유형이 크게 바뀌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유형이 바뀌기 이전의 버전으로 평가가 실시되었다. TOEIC은 ETS에서 주관하는 영어 능력 평가로 나름대로 신뢰도가 높은 평가지이다. 이 평가 결과는 본 연구에서 학습자들의 영어 어휘 전략 사용과 연계한 상관관계 분석을 위해 사용되었다.

4. 연구 결과 및 분석

본 연구는 한국 EFL 학생들의 영어 어휘 학습 전략 실태를 살펴보고, 그들이 사용하는 영어 어휘 전략 사용과 그들이 영어 능력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해 보기 위함이다. 구체적인 연구 분석 결과는 아래와 같다.

4.1. 영어 어휘 학습 전략 분석

먼저 본 연구에서 분석된 영어 어휘 학습 전략들을 각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면, 가장 활용도가 높은 전략은 의미발견전략 가운데 하나인 ‘단어의 뜻을 추측할 때 문맥을 고려한다.’라는 항목이 5단위 척도에서 평균 4.2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역시 의미발견전략 가운데 하나인 ‘모르는 단어 때문에 문장이나 전체 문단의 이해가 안 될 경우 사전을 찾아본다.’라는 항목이 평균 4.14로 그 뒤를 이었다. 가장 적은 활용도를 보인 어휘 학습 전략은 기억전략 가운데 하나인 ‘학습한 단어를 활용해 문장을 만들어본다 (M=2.41)’라는 항목이었고 그 뒤를 이은 것은 상위인지전략 중 하나인 ‘평상시에도 관심을 가지고 책이나 기타 영어 관련 미디어를 통해 영어 단어를 익힌다(M=2.46)’라는 항목이었다.

다음으로 어휘 학습 전략을 소영역별로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어휘 학습 전략 가운데 첫 번째 소영역인 ‘상위인지전략’이란 학습자가 의식적으로 자신의 전반적인 학습을 계획하고 조정하거나 평가하는 전략을 지칭한다.

표 3. 상위인지전략에 대한 분석

번호	어휘 학습 전략	평균	표준 편차
1	평상시에도 관심을 가지고 책이나 기타 영어 관련 미디어를 통해 영어 단어를 익힌다.	2.46	.96
2	영어에서 단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보다 효과적인 단어 학습을 위해 노력한다.	3.33	.98
3	단어를 보다 잘 학습하기 위해 나름대로 계획을 세운다.	3.06	1.03
4	학습한 단어를 주기적으로 복습하고 지속적으로 학습 상태를 확인한다.	2.73	1.13
영역 평균		2.90	

위 표 3은 본 연구 참가자들의 어휘 학습 전략 가운데 상위인지전략 영역에 대한 분석 결과를 표로 나타낸 것이다. 표 3에서 보듯이 이 영역은 4개 항목이 있는데 영역 평균이 2.90으로 6개 소영역 가운데 가장 낮은 평균을 보여주었다. 이 영역에서 가장 높은 평균 수치를 나타낸 항목은 ‘영어에서 단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보다 효과적인 단어 학습을 위해 노력한다.’라는 항목으로 평균이 3.33이었다. ‘평상시에도 관심을 가지고 책이나 기타 영어 관련 미디어를 통해 영어 단어를 익힌다.’라는 항목은 평균이 2.46으로 가장 낮은 평균 수치를 나타내었다. 이는 비록 학생들은 효과적인 단어 학습을 위해 노력하고 계획도 잘 세우나, 실제로는 평소에 영어 단어 학습을 소홀히 하고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의미발견전략: 결정전략’에 관해 살펴보면, 먼저 ‘의미발견전략’이란 새로운 단어의 의미를 파악하는데 사용되는 전략을 말한다. 그 가운데 ‘결정전략’이란 품사, 접두사, 어근 등 언어적 지식이나 문맥 등을 활용해서 의미를 파악하는 전략을 지칭한다. 표 4는 본 연구 참가자들의 어휘 학습 전략 가운데 의미발견전략: 결정전략 영역에 대한 분석 결과를 표로 나타낸 것이다.

표 4. 의미발견전략: 결정전략에 대한 분석

번호	어휘 학습 전략	평균	표준 편차
5	단어의 뜻을 추측할 때 문맥을 고려한다.	4.25	.61
6	단어의 뜻을 추측할 때 일반 상식이나 기존 지식들을 이용한다.	3.99	.83
7	단어의 뜻을 추측할 때 문장의 문법 구조를 이용한다.	3.24	.99
8	단어 뜻을 추측하기 위해 품사분석을 해 본다.	3.18	1.12
9	단어 뜻을 추측하기 위해 단어의 형성 구조(어근, 접두사, 접미사)를 분석해 본다.	3.47	1.10
영역 평균		3.63	

위 표 4에서 보듯이 이 영역은 5개 항목이 있는데 영역 평균이 3.63으로 6개의 소영역 가운데 가장 높은 평균을 보여주었다. 이 영역에서 가장 높은 평균을 보인 항목은 ‘단어의 뜻을 추측할 때 문맥을 고려한다.’라는 항목으로 평균이 4.25이었다. 또한 ‘단어의 뜻을 추측할 때 일반 상식이나 기존 지식들을 이용한다.’라는 항목도 평균 3.99로 매우 높았다. 이에 반해 ‘단어 뜻을 분석하기 위해 품사분석을 해 본다.’와 ‘단어의 뜻을 추측할 때 문장의 문법 구조를 이용한다.’라는 항목의 평균 수치는 각각 3.18, 3.24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이는 학생들은 문맥이나 일반 상식을 활용하는 것에는 부담이 적으나 품사 등 문법과 관련된 어휘 학습 전략에는 부담을 갖고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의미발견전략: 사전활용(인터넷 또는 전자사전 포함)’에 관해 살펴보면, 먼저 ‘의미발견전략’이란 위에서 언급했듯이 새로운 단어의 의미를 파악하는데 사용되는 전략을 말한다. 그 가운데 ‘결정전략’이 품사, 접두사, 어근 등 언어적 지식이나 문맥 등을 활용해서 의미를 파악하는 전략을 지칭하는 반면 ‘사전활용 전략’은 사전과 같이 참고가 될 만한 자료를 활용해서 의미를 파악하는 전략을 말한다. 표 5는 본 연구 참가자들의 어휘 학습 전략 가운데 의미발견전략: 사전활용 영역에 대한 분석 결과이다.

표 5. 의미발견전략: 사전활용(인터넷 또는 전자사전 포함)에 대한 분석

번호	어휘 학습 전략	평균	표준 편차
10	뜻을 모르는 어떤 단어가 글에서 여러 번 나타날 때 그 뜻을 사전에서 찾아본다.	4.13	.85
11	모르는 단어에 대한 나의 추측이 맞는 지를 확인하기 위해 사전을 찾아본다.	3.87	.89
12	모르는 단어 때문에 문장이나 전체 문단의 이해가 안 될 경우 사전을 찾아본다.	4.14	.83
13	문장이나 문단의 이해에 중요한 단어들은 사전을 찾아본다.	3.96	.82
14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볼 때 사전에 제시된 예문을 찾아본다.	3.21	1.17
15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볼 때 구절이나 숙어 등을 찾아본다.	2.96	1.13
16	단어 뜻의 미묘한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사전을 찾아본다.	3.07	1.10
영역 평균		3.62	

위 표 5에서 보듯이 이 영역은 7개 항목이 있는데 영역 평균은 3.62로 위에서 살펴본 의미발견전략: 결정전략과 마찬가지로 매우 높은 평균을 보여주었다. 이 영역에서 가장 높은 평균을 보인 항목은 ‘모르는 단어 때문에 문장이나 전체 문단의 이해가 안 될 경우 사전을 찾아본다.’라는 항목으로 평균이 4.14로 나타났다. 또한 ‘뜻을 모르는 어떤 단어가 글에서 여러 번 나타날 때 그 뜻을 사전에서 찾아본다.’라는 항목도 평균 4.13으로 매우 높았다. 이에 반해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볼 때 구절이나 숙어 등을 찾아본다.’라는 항목은 평균 2.96으로 이 영역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단어 뜻의 미묘한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사전을 찾아본다.’라는 항목 역시 평균 3.07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이는 학생들은 해당 단어의 뜻만 찾아 만족하고 추가적으로 구절이나 숙어, 미묘한 의미 차이 등은 소홀히 여기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다음으로 ‘기억전략’을 분석해 보면, 먼저 ‘기억전략’이란 기억을 잘 하기 위해 정보를 부호화하거나 조직화 하는 행위를 지칭한다. 표 6은 본 연구 참

가자들의 어휘 학습 전략 가운데 기억전략 영역에 대한 분석 결과를 표로 나타낸 것이다.

표 6. 기억전략에 대한 분석

번호	어휘 학습 전략	평균	표준 편차
17	단어의 의미를 나의 경험이나 지식과 연결한다.	3.60	1.00
18	동의어 또는 반의어와 연결하여 단어를 학습한다.	3.40	1.05
19	연관된 단어끼리는 묶어서 학습한다.	3.49	.99
20	학습한 단어를 활용해 문장을 만들어 본다.	2.41	1.14
21	발음이 비슷한 단어끼리 같이 암기한다.	3.06	1.13
22	철자법이 비슷한 단어끼리 같이 암기한다.	3.29	1.12
영역 평균		3.21	

위 표 6에서 보듯이 이 영역은 6개 항목이 있는데 영역 평균이 3.21로 6개의 소영역 가운데 다소 낮은 평균을 보여주었다. 이 영역에서 가장 높은 평균을 보인 항목은 ‘단어의 의미를 나의 경험이나 지식과 연결한다.’라는 항목으로 평균이 3.60이었다. 또한 ‘연관된 단어끼리는 묶어서 학습한다.’라는 항목도 평균 3.49로 매우 높았다. 이에 반해 ‘학습한 단어를 활용해 문장을 만들어 본다.’라는 항목은 평균이 2.41로 전체 설문 항목 가운데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내었다. 이는 배경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학생들은 아무래도 작문에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다음으로 ‘인지전략’에 관해 살펴보면, 먼저 ‘인지전략’이란 어휘노트 만들기, 반복하기 등 단순히 반복되는 기계적인 행위를 지칭한다. 표 7은 본 연구 참가자들의 어휘 학습 전략 가운데 인지전략 영역에 대한 분석 결과이다.

표 7. 인지전략에 대한 분석

번호	어휘 학습 전략	평균	표준 편차
----	----------	----	-------

23	새로운 단어는 단어장을 만들어 암기한다.	3.36	1.21
24	단어를 반복해 써 가며 암기한다.	3.37	1.24
25	단어를 소리 내어 반복하면서 암기한다.	3.73	1.06
26	단어장을 가지고 다니고 암기한다.	2.84	1.15
영역 평균		3.33	

위 표 7에서 보듯이 이 영역은 4개 항목이 있는데 영역 평균이 3.33으로 6개의 소영역 가운데 다소 낮은 평균을 보여주었다. 이 영역에서 가장 높은 평균을 보인 항목은 ‘단어를 소리 내어 반복하면서 암기한다.’라는 항목으로 평균이 3.73이었다. 이에 반해 ‘단어장을 가지고 다니고 암기한다.’라는 항목은 평균 2.84로 이 영역에서 가장 낮은 평균 수치를 보였다. 이는 최근 학생들이 단어장 대신 거의 스마트폰을 휴대하고 있음에 기인된 결과로 여겨진다.

끝으로 ‘어휘활용전략’에 관해 살펴보면, 먼저 ‘어휘활용전략’이란 학습자가 이미 익힌 어휘를 평상시에 연습하고 노력하는 행위를 지칭한다. 표 8은 본 연구 참가자들의 어휘 학습 전략 가운데 어휘활용전략 영역에 대한 분석 결과를 표로 나타낸 것이다.

표 8. 어휘활용전략에 대한 분석

번호	어휘 학습 전략	평균	표준 편차
27	학습한 단어들을 많이 사용해 보기 위하여 가능한 많이 읽는다.	3.21	1.00
28	학습한 단어를 말이나 글로 표현해 보려고 노력한다.	2.83	1.04
29	학습한 단어를 실제 상황에서 사용해 보려고 노력한다.	2.86	1.09
30	학습한 단어를 연습해 보기 위해 단어가 쓰이는 상황을 머릿속에 그려본다.	3.07	1.04
영역 평균		2.99	

위 표 8에서 보듯이 이 영역은 4개 항목이 있는데 영역 평균은 2.99로 6개의 소영역 가운데 매우 낮은 평균을 보여주었다. 이 영역에서 가장 높은 평균

을 보인 항목은 ‘학습한 단어를 연습해 보기 위하여 가능한 많이 읽는다.’라는 항목으로 평균이 3.21이었다. 이에 반해 ‘학습한 단어를 말이나 글로 표현해 보려고 노력한다.’라는 항목은 평균 2.83으로 이 영역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학생들의 경우, 독해 위주의 수능 준비로 읽기 학습에는 익숙해져 있으나 말하기나 작문 등은 아직도 어려워하고 있음에 따른 이유로 풀이된다.

다음으로 위의 영어 어휘 전략 소영역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면 아래 표 9와 같다. 아래 표 9에서 보듯이 본 연구에 참여한 EFL 학생의 경우 어휘 학습 전략의 사용 수준은 평균 3.28로 나타났고, 그 가운데 ‘의미발견전략’ 두 영역이 평균 3.63, 3.62로 가장 활용도가 높게 나타났고, ‘상위인지전략’이 평균 2.90으로 학생들 사이에서 가장 낮은 활용도를 나타내었다. 또한 ‘어휘 활용전략’도 평균이 2.99로 비교적 적게 활용하는 전략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볼 때, 우리나라 학생들의 경우 영어 어휘 전략 가운데 타 소영역에 비해 활용도가 떨어지는 ‘상위인지전략’과 ‘어휘활용전략’에 대한 인식과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

표 9. 소영역 간 종합적 분석

어휘 학습 전략	평균	활용도 순위
상위인지전략	2.90	6
의미발견전략: 결정전략	3.63	1
의미발견전략: 사전활용 (인터넷 또는 전자사전 포함)	3.62	2
기억전략	3.21	4
인지전략	3.33	3
어휘활용전략	2.99	5
전체 평균	3.28	

4.2. 영어 성적 분석

본 연구에서는 영어 평가지로서 대체적으로 신뢰도가 높은 TOEIC이 사용되었는데 그 결과, 학생들의 성적 평균이 748.92였고, 표준편차는 112.83으로 나타났다. 이는 만점이 990점이라는 것을 고려해 볼 때 중상위 수준으로 평가될 수 있겠다. 이는 교육대학교 입학생들의 경우, 고등학교 시절 수능 영어등급이 대부분 상위권에 위치한 학생들로 이루어진 까닭에서 비롯된 결과라 여겨진다.

4.3. 상관관계 분석

다음으로 본 연구 참가자들의 영어 어휘 학습 전략 사용과 그들의 영어 성적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해 보면 아래 표 10과 같다. 표 10은 본 연구의 설문 조사에서 나타난 학생들의 영어 어휘 학습 전략과 학생들의 TOEIC 성적을 SPSS 통계 프로그램으로 분석해 보고 이에 나타난 Pearson 상관관계 계수를 분석한 자료이다.

표 10. 영어 어휘 학습 전략과 영어 성적 간의 Pearson 상관관계

	상위인지	의미발견결정전략	의미발견사전활용	기억	인지	어휘활용	영어성적
상위인지		.334**	.348**	.562**	.569**	.494**	.381**
의미발견결정전략			.406**	.475**	.258**	.374**	.229*
의미발견사전활용				.532**	.405**	.357**	.152
기억					.643**	.585**	.092
인지						.407**	.039
어휘활용							.087
영어성적							

*p < .05, **p < .01

분석 결과, 6개의 소영역 영어 어휘 학습 전략 간의 상관관계는 전체적으로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어 주었다. 영어 어휘 학습 전략 간 모든 소영역이 .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여주었다. 6개의 소영역과 영어 성적 간의 상관관계는 위 표 10에서 보듯이 상위인지전략이 .381로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주었고, 의미발견전략 가운데 결정전략이 .229로 .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그러나 그 밖의 전략, 즉 의미발견전략: 사전활용, 기억전략, 인지전략, 어휘활용전략 등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여주지 못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본 연구에서 학생들은 의미발견전략을 영어 어휘 전략 가운데 가장 많이 사용하였는데 이 전략 가운데 결정전략은 그들의 영어 성적과는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인 것이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의미발견 전략 가운데 사전활용전략은 앞선 분석에서 학생들이 많이 사용하기는 하나, 그들의 영어 성적과는 상관관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상위인지전략은 학생들이 사용하는 정도가 극히 낮은 전략으로 나타났으나, 그들의 영어 능력과는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어 주어서 눈여겨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다.

5. 결론 및 제언

외국어로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영어의 네 가지 기능, 즉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능력이 균형감 있게 발달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선결 요건이 아마도 학습자의 어휘력일 것이다. 어휘는 외국어 능력에서 기초 역할을 하므로 EFL 학습자는 풍부한 어휘력이 바탕이 되면 영어로 상대방과 대화하고 교류하는 데 자신감을 갖게 될 것이다. 또한 그러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영어 학습을 즐기게 되며 동기 부여가 되어 그 실력을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교육대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생들의

영어 어휘 학습 전략 사용 실태를 알아보고, 그들이 사용하는 영어 어휘 학습 전략과 영어 성적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해 보았다. 이를 통해 연구자는 학생들에게 부족한 영어 어휘 전략이 무엇이고 어떤 영어 어휘 전략이 효과적인지 고찰해 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영어 어휘 전략은 의미발견전략이었고 가장 적게 사용하는 전략은 상위인지전략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미발견전략의 경우 결정전략, 사전활용전략 모두 학생들 사이에서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영어 어휘 전략 30개 문항을 개별 항목별로 분석해 본 결과, 가장 활용도가 높은 어휘 학습 전략은 의미발견전략 가운데 하나인 ‘단어의 뜻을 추측할 때 문맥을 고려한다(M=4.24)’로 나타났고, 가장 적게 활용된 어휘 학습 전략은 기억전략 가운데 하나인 ‘학습한 단어를 활용해 문장을 만들어본다(M=2.41)’로 나타났다. 배경설문조사에서 학생들은 쓰기 영역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였는데 이와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는 결과로 여겨졌다.

셋째, 어휘 학습 전략과 영어 성적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해 본 결과, 상위인지전략이 학생들의 영어 성적과 가장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여주었고 그 다음으로 의미발견전략 가운데 결정전략이 학생들의 영어 성적과 상관관계가 높은 전략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연구자는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우리나라 학생들은 상위인지전략의 사용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외국어 학습 전략 가운데 상위인지전략은 다른 영어의 기능 특히, 듣기와 읽기 영역에서 여러 전략들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전략이다. 그러므로 차후 교사가 어휘지도시 이러한 상위인지전략을 명시적으로 지도하여 이 전략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비록 학생들 사이에서 상위인지전략의 사용 정도는 낮게 나타났으나 상관관계 분석 결과, 이 전략이 학생들의 영어 성적과 가장 유의미한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교사는 학습자로 하여금 상위인지전략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학생들이 이 전략의 효용성을 인식하도록 하고, 연구자는 이 전략에 대한 보다 심도 깊은 연구를 진행하는 것

이 필요해 보인다.

셋째, 학생들에게 이 연구에서 도출된 여러 영어 어휘 학습 전략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지도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다. 본 연구를 통해 영어 능력과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난 상위인지전략과 결정전략에 대한 전략 지도가 우선이 되고, 이러한 전략에 대한 실험연구 결과에서 전략 훈련의 효과성이 검증이 되면 다른 어휘 전략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전략 훈련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겠다.

끝으로 이 연구의 제한점에 대한 몇 가지 언급이 필요하겠다. 우선 본 연구에서 설문 및 평가 자료로 분석된 인원이 142명으로 그리 많지 않으며 교육 대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로 제한된 그룹이기 때문에 이 연구 결과를 일반화 하는 데는 무리가 따를 수 있다. 따라서 향후 더욱 많은 연구 참가자 수와 다양한 그룹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 본 연구에 나타난 결과와 비교 분석이 이루어지면 좋겠다.

둘째, 본 논문은 EFL 학습자들의 영어 어휘 학습 전략 사용 실태 분석과 함께 학습자들의 영어 어휘 전략 사용도와 영어 능력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연구이나, 특정 어휘 학습 전략을 사용했다고 하여 그것이 바로 TOEIC 고득점으로 연결된다고 볼 수 없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EFL 학습자들의 어휘 학습 전략 사용과 학습자의 영어 능력 측정 신뢰도가 비교적 높은 TOEIC 성적 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직접적인 관계가 아니지만 간접적 또는 일정 부분 상관관계 여부를 가늠해 볼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또한 특정 학습 전략이 어휘력 신장에 유의미한 영향을 준다고 말하고 싶다면, 그 전략을 키울 수 있는 활동을 하고 사전, 사후 검사를 통해 어휘력이 신장되었다는 결론을 얻었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연구는 그러한 영향 및 효과성 여부를 밝히거나 확정된 연구는 아니고, 단지 영어 학습 전략의 사용과 영어 능력 간의 상관관계를 고찰한 연구이다. 향후 연구에서 실험반, 통제반이 설정되고 사전, 사후 검사 및 처치를 통해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져 영어 능력에 대한 어휘 전략 사용의 효과성 여부를 심도 깊게 고찰해 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위와 같은 시도나 노력을 통해 더욱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어휘 지도 방법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되고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학생들의 영어 어휘 능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ABSTRACT]

EFL Learners' Use of English Vocabulary Learning Strategies and
Their Relationships with English Proficiency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Korean EFL learners' use of vocabulary learning strategies and to explore their relationships with the learners' English proficiency. A self-report questionnaire was administered to 142 university students in order to identify their use of vocabulary learning strategies. Students' English proficiency was measured using the TOEIC test. A total of 30 items grouped into six major categories in the questionnaire were examined and analyzed with the scores from the TOEIC test. The results of the study showed that the most frequently used vocabulary learning strategy by Korean EFL learners was 'meaning finding strategy', followed by 'cognitive strategy' and 'memory strategy', whereas the least frequently used vocabulary learning strategy by them was 'metacognitive strategy.' The results also showed that the use of 'meaning discovery strategy' and 'metacognitive strategy'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their performance on the TOEIC test. These findings suggest that the use of certain vocabulary learning strategies could play an important role in performance in a foreign language. Several implications were discussed based on the findings of this study.

Key words : English vocabulary, vocabulary education, learning strategies, vocabulary learning strategies, strategy analysis, words, relationship

참고문헌

□ 단행본

- 김영숙, 『초등영어 어휘교육』, 한국문화사, 2002, 1-190면.
- Ahmed, M. O., *Vocabulary learning strategies*, In P. Meara(Ed.), *British studies in applied linguistics: Beyond words*(pp. 3-14), British Association of Applied Linguistics/Centre for Language Teaching, London, 1989, 1-96면.
- Coady, J., & Huckin, T., *Second language vocabulary acquisi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1997, 1-299면.
- Laufer, B., *What's in a word that makes it hard or easy: Some intralexical factors that affect the learning of words*, In N. Schmitt & M. McCarthy(Eds.), *Vocabulary*(pp. 140-155),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1997, 1-383면.
- McCarthy, M., *Vocabulary: Applied linguistic perspectives*, Oxford University Press, Oxford, 1990, 1-219면.
- Nunan, D., *The learner-centered curriculum*.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1988, 1-196면.
- O'Malley, J., & Chamot, A., *Learning strategies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1990, 1-256면.
- Oxford, R., *Language learning strategies: What every teacher should know*. Newbury House, New York, 1990, 1-368면.
- Rivers, W. M., *Speaking in many tongues* (3rd ed.),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1983, 1-320면.
- Rubin, J., *Learner strategies: Theoretical assumptions, research history and typology*, In A. L. Wenden & J. Rubin(Eds.), *Learner strategies in language learning*(pp. 15-30), Prentice Hall, Englewood Cliffs, 1987, 1-181면.
- Schmitt, N., *Vocabulary learning strategies*, In N. Schmitt & M. McCarthy(Eds.), *Vocabulary: Description, acquisition, and pedagogy*(pp. 199-207),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1997, 1-383면.
- Sokmen, A., *Current trends in teaching second language vocabulary*, In N. Schmitt & M. McCarthy(Eds.), *Vocabulary: Description, acquisition, and pedagogy*(pp. 145-176),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1997, 1-383면.
- Wills, J., *A framework for task-based learning*, Longman, Harlow, UK, 1996,

1-183면.

□ 논문

- 김동규, 「사례연구를 통해 살펴본 ESL 유학 아동의 영어 능력 및 정서적 요인 변화 비교 분석」, 『국제언어문학』 제27호, 국제언어문학회, 2013, 153-183면.
- 김지선, 「대학생의 어휘력과 어휘학습책략과의 관계」, 『현대교육연구』 제12집 3호, 현대 영어교육학회, 2011, 230-251면.
- 나은경, 「한국 고등학생의 어휘 학습 책략」, 고려대 석사논문, 2002.2. 1-89면.
- 이정은 · 김동규, 「영어 어휘 연구의 주제별 분석을 통한 영어 어휘 교육의 재조명」, 『국제언어문학』 제30호, 국제언어문학회, 2014, 31-63면.
- Catalan, R. M. J., Sex differences in L2 vocabulary learning strategies, *International Journal of Applied Linguistics*, 13(1), 2003, 54-77면.
- Fan, M. Y., Frequency of use, perceived usefulness, and actual usefulness of second language vocabulary strategies: A study of Hong Kong learners, *Modern Language Journal*, 87, 2003, 222-241면.
- Grace, C., Gender differences: Vocabulary retention and access to translation for beginning language learner, *Modern Language Journal*, 84(2), 2000, 214-224면.
- Gu, Y., & Johnson, R. K., Vocabulary learning strategies and language learning outcomes, *Language Learning*, 46(4), 1996, 643-679면.
- Naiman, N., Fröhlich, M., & Todesco, A., The good second language learner. *TESL Talk*, 6, 1975, 58-75면.
- Park, J., Korean EFL learners' vocabulary learning strategies, *English Teaching*, 56(4), 2001, 3-30면.
- Rubin, J., What the 'good language learner' can teach us. *TESOL Quarterly*, 9, 1975, 45-51면.
- Stern, H. H., What can we learn from the good language learner? *Canadian Modern Language Review*, 31, 1975. 304-318면.
- Stoffer, I., *University foreign language students' choice of vocabulary learning strategies as related to individual difference variable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Alabama, 1995, 1-358면.

[부록]

영어 어휘 학습 전략 설문지

다음은 여러분의 영어 어휘 학습에 관한 설문입니다. 이 설문은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을 알아보는 것으로 정답이나 오답은 없습니다. 각 항목을 읽고 여러분에게 가장 잘 해당되는 사실 하나를 다섯 개의 예문 중에서 선택하여 각 번호에 V 표 해 주십시오.

예문

- ① 결코 아니다. ② 대체로 그렇지 않다. ③ 그저 그렇다.
 ④ 대체로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상위인지전략	①	②	③	④	⑤
1 평상시에도 관심을 가지고 책이나 기타 영어 관련 미디어를 통해 영어 단어를 익힌다.					
2 영어에서 단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보다 효과적인 단어 학습을 위해 노력한다.					
3 단어를 보다 잘 학습하기 위해 나름대로 계획을 세운다.					
4 학습한 단어를 주기적으로 복습하고 지속적으로 학습 상태를 확인한다.					
의미발견전략: 결정전략					
5 단어의 뜻을 추측할 때 문맥을 고려한다.					
6 단어의 뜻을 추측할 때 일반 상식이나 기존 지식들을 이용한다.					
7 단어의 뜻을 추측할 때 문장의 문법 구조를 이용한다.					
8 단어 뜻을 추측하기 위해 품사분석을 해본다.					
9 단어 뜻을 추측하기 위해 단어의 형성 구조(어근, 접두사, 접미사)를 분석해 본다.					
의미발견전략: 사전활용(인터넷 또는 전자사전 포함)					
10 뜻을 모르는 어떤 단어가 글에서 여러 번 나타날 때 그 뜻을 사전에서 찾아본다.					
11 모르는 단어에 대한 나의 추측이 맞는 지를 확인하기 위해 사전을 찾아본다.					
12 모르는 단어 때문에 문장이나 전체 문단의 이해가 안					

	될 경우 사전을 찾아본다.					
13	문장이나 문단의 이해에 중요한 단어들은 사전을 찾아본다.					
14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볼 때 사전에 제시된 예문을 찾아본다.					
15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볼 때 구절이나 속어 등을 찾아본다.					
16	단어 뜻의 미묘한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사전을 찾아본다.					
기억전략						
17	단어의 의미를 나의 경험이나 지식과 연결한다.					
18	동의어 또는 반의어와 연결하여 단어를 학습한다.					
19	연관된 단어끼리는 묶어서 학습한다.					
20	학습한 단어를 활용해 문장을 만들어본다.					
21	발음이 비슷한 단어끼리 같이 암기한다.					
22	철자법이 비슷한 단어끼리 같이 암기한다.					
인지전략						
23	새로운 단어는 단어장을 만들어 암기한다.					
24	단어를 반복해 써가며 암기한다.					
25	단어를 소리 내어 반복하면서 암기한다.					
26	단어장을 가지고 다니고 암기한다.					
어휘활용전략						
27	학습한 단어들을 많이 사용해보기 위하여 가능한 많이 읽는다.					
28	학습한 단어를 말이나 글로 표현해 보려고 노력한다.					
29	학습한 단어를 실제 상황에서 사용해 보려고 노력한다.					
30	학습한 단어를 연습해 보기 위해 단어가 쓰이는 상황을 머릿속에 그려본다.					

이 논문은 2017년 7월 7일 접수되어 7월 28일까지 심사받아 8월 19일 게재 확정됨.